

불국사 ‘산사의쉼터’ 개점

문화사업단 전산지원으로 불교전문서점화

제11교구본사 불국사에 전문서점인 ‘산사의쉼터’가 지난 1일 개점했다. 이 서점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불교전문서점과 전산망을 공유해 운영시스템 지원 및 각종 서비스의 수준을 전문화했다. 특히 전산망의 공유로 도서의 유통과정이 간결해지고 목록검색 등에서 편의성과 신속성이 커져 불교전문서점의 경영혁신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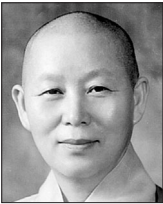
종훈스님은 “광주 무각사 등에서 사찰 간이서점에 대해 협의 중이며 연내에 여러 사찰에서 경내서점 개점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국사 서점 운영을 맡은 성명스님은 “전문인력이 없어도 불서 전문서점을 운영하는 이점이 있다”며 “찾집과 북카페 등을 겸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빠른 시일내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찬 기자 kimjc00@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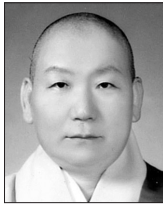
〈불교신문〉은 “종지와 정책의 선양을 위한 종단 언론시책과 홍보업무 및 포교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관지령’에 근거해 조계종 총무원 중무회의의 결의와 총무원장 스님 결재를 득한 전국 본말사 주지 인사 내용을 소개합니다(교구본사 순). 지면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다음호에 이어 소개할 예정입니다. 임명일 (3월4일 중무회의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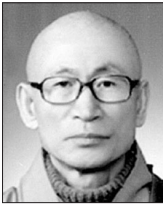
계호스님
서울 진관사



태연스님
사천 홍호사



도관스님
사천 대성사



성호스님
광주 관음암

‘여행자’와 ‘알파걸’ 상관관계



현장에서

지금 서점가는 〈덕혜옹주〉가 단연 화제다. 조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에 관한 장편소설이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은 〈1Q84〉의 아성을 제치고 지난 몇 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저자는 여류 무명작가에서 일약 신경증 공지영에 버금가는 스타로 떠올랐다. 20~30대 직장여성 이 주요 구매자라는 게 출판계 종사자들의 귀뜸이다. ‘알파걸’이 뜬 지 오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넉넉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엘리트여성을 가리킨다. 결혼과 출산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고 소비하는 게 특징이다. 이들의 지갑을 겨냥한 신종사업도 기지개를 켜는 상황이다. 여성 권의 신장이라는



장성성 기자
fuel@ibulgyo.com

시대적 변화에 따른 유행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다. 다만 알파걸이란 신조어가 탄생한 시점과 여성 출가자가 급격히 감소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을 인지하면, 종단 입장에서는 한번쯤 곱씹어야 할 계제다.

5~6년 전만해도 기수별로 70~80명 선을 유지하던 여성 출가자 수가 갈수록 줄어 38기에는 고작 41명이 입방했다. 너무 가파르다. 물론 결혼을 꿈꾸지 않는 게 출가를 기피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증거는 없다. 사회적 능력이 발심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할 순 없다. 교육원은 좀 더 세밀하게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출가가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3월8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183회 임시총회에는 모두 27건의 정책질의가 접수됐다. 특히 △주지인사 고과제 시행 △토지처분금 및 대토현황(승언스님) 등 종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상당수 있었다. 또 한 △종단 선양을 위한 호법 성인 추모 △불교단체 국제구호기금 배정 내역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번 제183회 임시총회의 주요 정책질의와 답변을 요약했다.

△ 정법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선대 큰스님들을 비롯한 불자님들을 ‘호법성인(護法聖人)’으로 추대하고, 이 분들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달라.(태연스님) = (총무부) 불법을 전파하고 수호하는데 기여한 ‘호법성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종단에서는 ‘호법성인’을

찾아내어 종단에서 직접 하거나, 각 본·말사에서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 조계종 소속 사찰 및 산하기관, 산하단체에 종사하는 종무원 및 종사자 현황을 보고해 달라.(진화스님) = (총무부) 3월4일 기준으로, 중앙종무기관은 교역직 45명, 일반직 125명 등 170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하기관에는 교역직 10명, 일반직 135명 등 145명이 근무 중이다. 교구본사에는 일반직 572명이 근무하고 있다. 향후 현황자료를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겠다.

△ 최근 10년간 사찰별 관람료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사용처도 밝혀 달라. 향후 종단 차원에서 관람료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대안도 제시해 달라.(선문스님) = (재무부) 문화재구역입장료(구 관람료) 사찰의 총 수입 중 17%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분담금으로, 30%는 예치금으로 사용(지출)하고 있다. 나머지 53%는 성보관리 및 사찰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재구역입장료와 관련 정부부처와 불교를 규제하고 있는 주요 국가법령의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는 국립공원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자연공원법 개정과 연계하여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 33대 총무원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찰토지처분금의 효과적 활용안’을 원안대로 추진해 신도시

포교거점 구축과 종단목적사업기금 확보 등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주경스님) = (재무부) ‘사찰토지처분금의 효과적 활용안’이 나오게 된 근본취지는 사찰토지처분금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포교와 전법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 기존의 종단목적사업기금을 향후 신도시 종교용지매입, 전법회관 건립, 포교소 건립 등에 사용하고자 한다. 향후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 최근 10년간 본사별 토지처분금 금액과 대토한 면적, 사용한 금액, 그리고 대토에 사용하지 않고 다룬 용도로 사용한 금액과 주요 목적

사업 내역을 밝혀 달라. 향후 토지처분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종단 입장과 본사주지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밝혀 달라.(승언스님) = (재무부) 10년간 본사별 토지처분 승인현황을 보면 1444억 원이 처분됐다. 면적은 약 49만4000평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전용한 금액은 약 150억 원이며, 처분 및 전용에 대한 목적기금은 749억 원이다. 2001~2007년도의 토지처분금 대비통계를 보면 목적기금 15%, 전용 26%, 대토 18%, 적립금 41%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총회에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무자스님) △금강산 신계사 순례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월우스님)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에 대하여(정범스님) △불교단체 국제구호기금 배정 내역에 대하여(승언스님) △위법한 사찰 부동산 처리 결과에 대하여(현조스님) △한국불교호스피스 협회에 대하여(종호스님) △포교사단과 포교사의 종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주경스님) △법회의 종류와 날짜를 정하지 않는 종법 미비에 대하여(정범스님) △국제포교 활동 현황과 국제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방향에 대하여(해원스님) △사찰 음식점 ‘바루’ 위탁 운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범해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선문스님) △전통불교문화원 시설공사 및 운영에 대하여(종호스님) △제23교구본사 관음사 현황에 대하여(무애스님) △해인사 조주연수원 매입과 무량수전 연대보존에 대하여(진화스님) 등에 대한 정책질의가 접수됐다.

정리=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자비나눔기금 전달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정호스님·왼쪽에서 두번째)와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스님·네번째)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은 정호스님과 계호스님은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에게 각각 1000만원을 건넸다. 또한 용주사는 아이티 구호성금 34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아름다운동행이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용주사와 진관사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사진 김철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재임 정호스님

“종단 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데다가 개인 수행시간도 더 갖고 싶었는데 문종의 의견을 뿌리칠 수 없어 용주사 주지 소임을 한 번 더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효문화 선양과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지원,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임명장을

받은 정호스님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정호스님은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3000배와 철야정기, 참선 등 철야정진기도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도 강화해 불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산문을 활짝 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행교육원 생활관과 템플스테이센터도 준

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제반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아 신행활동을 뒷받침 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있으면 생활관과 센터 시설이 갖춰지는 만큼 수행과 연관된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같은 신행활동과 더불어 불자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장을 열 수 있

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적인 의료봉사와 더불어 전통적인 대체의학 강좌를 개설하고 시술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용주사 인근 대안3지구 개발사업에 맞서 ‘효찰대본산’으로서의 효문화 선양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유일의 효 문화유적지인 용주사와 용·건릉 유적지를 한국전통요문화를 배우고 한국적인 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해야지, 대규모 택

지개발과 아파트 건립으로 훼손돼선 절대 안될 것입니다.” 지난 2일 용주사 산중총회에서 용주사 주지 후보로 선출된 정호스님은 주지 잔잔식은 따로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호스님은 지난 1973년 인천 용화사 범보선원에서 전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1973년 용화사 범보선원 수선안거 이래 3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지난 2006년 3월12일부터 용주사 주지 소임을 맡아왔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제39기 수계교육(행자교육원) 행자 등록 안내

2010년 하반기(8월말 또는 9월초 예정)에 봉행 예정인 제39기 수계교육(행자교육원) 입교대상자에 대한 교육원 등록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공지한 등록기준일을 어길 경우 제39기 수계교육(행자교육원) 입교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행자교육지침 제3조, 제5조에 의거하여 등록사찰 주지는 사찰에 출가자가 입문하면 소속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교육원에 행자등록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등록일 : 2010년 3월 26일 까지
(우편소인 유효)

■제출서류 : 행자등록신고서 및 신원확인서 각 1부

■등록대상

- 1)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행자교육원 입교일 기준)
- 2) 고졸 이상 학력자
- 3) 기타 중법명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4) 기타문의: 교육원 (02)2011-1801 / 담당자 류창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



출가 희망자에게 알립니다

출가수행은 진실한 자아를 찾고 구원의 빛이 되는 희망의 길ियो 성스러운 길입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사회와 단절하는 삶이 아니라 고귀한 가치 실현의 길입니다.

출가수행은 현대사회의 비인간화와 소외를 배격하고 진실과 헌신, 조화와 공존의 참된 삶을 추구하고 구현하는 ‘희망과 대안’의 공동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한 해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출가자들에게 사미·사미니계 수계식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출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먼저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된 사찰 중 자신이 출가하고 싶은 사찰을 방문하여 주지스님과 면담하여 신원과 심신상태를 점검 후 행자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기2554(2010)년도 하반기(8월말 또는 9월 초 예정)에 수계를 원하는 분들은 오는 3월 26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 행자등록이 되어야 하오니, 이점을 유념하시어 행자등록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02)2011-1801~4